

집단참여가 사적·공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유흥준·홍훈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공적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개인의 사적신뢰와 공정성 인지라는 매개변인을 통한 사회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적 연결망이 강한 특성을 갖고, 신뢰와의 관계도 서구사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연구관심을 반영한다.

연구모델에 따라, 서구사회에서 발전한 가설 4개에 덧붙여서 '공정성 인지(認知)'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총 7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서구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단체참여와 신뢰와의 관계가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발전연구소'가 2003년에 수집한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조사」인데,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한 최종 표본은 1,200 사례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은 탐색적 요인분석(EFA), 확인적 요인분석(CFA), 공변량 구조분석 등이다.

자료의 분석 결과, 우리사회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공식집단への 참여가 사회에서 공적신뢰를 높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적신뢰를 매개로 하여 공정성인지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공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공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은 단체참여로 인한 사적신뢰의 증감과 개인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신뢰, 공적신뢰, 사적신뢰, 연결망, 연줄, 단체참여, 공식집단, 비공식집단, 공정성 인지

I. 머릿말

신뢰는 시민사회의 형성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¹⁾ 그런데

1) 신뢰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여 결사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요소이고 (Tocqueville, 1990), 민주주의에 필요한 도덕적 자원이며(Putnam, 1993),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의 시민사회 발달과정과는 다르게, ‘연줄’ 혹은 연고주의라고 불리는 독특한 연결망이 형성되어 왔고 신뢰 역시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줄망은 국가/비국가, 공식/비공식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고로 엮힌 사회적 관계는 개인에게 행위의 자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연고를 매개로 한 친목모임과 경조사를 챙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반면,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이익단체의 활성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창들에게 10만원의 술을 살 사람은 많아도, 시민단체에 5만원의 회비를 낼 사람은 드문 것이다(유석춘 외, 2000).

이러한 연결망 특성으로 인해, 집단내부에서의 강한 유대와 자기이익화로 인해 비록 그 내부에서는 신뢰가 강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반면에 사회제도나 공식적 집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기도 한다. 신뢰는 형성되기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 만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쟁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가 기구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집단적 단합이나 연고주의에 의해 공정성이 허물어진다면 신뢰는 급속히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 확보는 신뢰의 형성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박병진, 2004).

콜만(Coleman, 1988)과 퍼트남(Putnam, 1993)에서부터 후쿠야마(Fukuyama, 1995)에 이르기까지 기존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풍요와 정부의 효율성을 이끄는 신뢰의 순기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관심의 연장에서, 국내에서는 연결망분석(김용학, 1987; 박찬웅, 1999) 혹은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이재열, 2001),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유석춘, 2000) 등을 연구주제로 다루면서 신뢰가 낳는 다분히 긍정적인 측면에 주로 관심을 두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우리 사회가 ‘높은 사적신뢰와 낮은 공적신뢰’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설에 따라, 높은 사적신뢰 즉 고연줄망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강한 사적 연결망에 의한 폐해는 중앙집중화된 한정적 자원에 대한 소수 집단의 사적

경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Coleman, 1988)이기도 하다.

장악과 이 과정의 반복, 이에 따른 부정부패의 만연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이재혁, 1999; 김용학·손재석, 1998). 또한 강한 집단내 유대감은 집단 내부에 소속되어 있는 성원에게는 일종의 안심을 주는 반면, 집단 외부인에게는 소외의 박탈감을 일으켜 집단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관심은 ‘높은 사적신뢰와 낮은 공적신뢰’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강한 사적 연결망의 특성 및 이러한 특성이 신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공적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개인의 사적신뢰와 공정성 인지라는 매개적 변인을 통한 사회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신뢰의 다차원성

사회학 이외에도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trust)’를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개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Shapiro, 1987; Hosmer, 1995), 이로 인해 신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 장애가 되고 있다(박찬웅, 1999). 더욱이 이러한 개념적 혼란은 경험적 연구 대상으로서 신뢰의 정의와 측정의 구성타당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원숙연, 2001).

신뢰의 개념적 혼란에 초점을 맞추어 다차원성을 밝혀보면, 대상적 다차원성과 내용적 다차원성으로 구별된다. 신뢰는 대인간, 조직간, 개인과 조직간, 개인과 사회제도 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적 다차원성을 갖는다. 한편 내용적 다차원성은 일종의 태도인 신뢰를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신뢰를 개인의 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으로 보는 인성론적 입장(Rotter, 1967)이나 신뢰를 신뢰대상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기대로 보는 입장(Golembiewski and McConkie, 1975)은 암묵적으로 신뢰의 단일차원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뢰는 단순한 인성의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신뢰가 인지적 차원²⁾과 감정적 차원³⁾의 2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주장(Johnson-George and Swap, 1982; Remple et. al., 1985)과 인지적, 감정적 차원 외에 행동적 차원⁴⁾까지 포함하는 3차원적 개념이라는 주장이다(Zand, 1972; Lewis and Weigert, 1985). 전자의 입장에서 신뢰는 한 단위(주체)가 다른 단위(신뢰대상)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의미의 평가적 태도이다(이종범, 1986).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 신뢰란 ‘타인에 대한 어떠한 느낌 또는 감정만이 아닌 의존성에 대한 의식적인 규제’를 포함한다(Zand, 1972).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신뢰의 개념 중에서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간 및 개인과 제도간의 신뢰에 초점을 두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2. 공정성

최근의 공정성(equality)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공정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는지에 따라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연구와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연구로 대별된다. 분배공정성 연구는 호만스(Homans, 1961)와 애덤스(Adams, 1965)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호만스는 형평(equ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쌍방향 교환관계에 있는 행위자들 간의 투자 대 이익의 산술적 차이의 비교로 공정성을 개념화하였고, 애덤스는 호만스와는 약간 다르게 불형평(inequity)이라는 용

2) 신뢰의 인지적 차원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을 근거로 어떤 대상은 믿고, 어떤 대상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지적 선택과정을 말한다(Hardin, 1998).

3) 감정적 차원은 신뢰대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등의 느낌을 말한다. 감정적 차원은 인지적 차원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으며 일정시점에서 나타나는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근거할 경우도 있다. 감정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신뢰는 관계의 당사자들 간에 형성되는 감정적,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다(Lewis & Weigert, 1985; Clark & Pyane, 1997).

4) 행동적 차원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로서 신뢰의 행동적 차원은 신뢰 대상에 대한 의존성의 증대의지로 볼 수 있다(Zand, 1972). 즉 이것은 신뢰대상이 유능하며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해 위험한 행동에 착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Luhmann, 1979), 정태적인 심리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동의 의지는 포함하는 ‘행동적 실행(behavior enactment)’이다(Lewis and Weigert, 1985).

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직접적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투자 대 산출 비율의 차이로 개념화하고 그 전제조건과 결과에 대한 일련의 이론적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 후에 학자들은 직접적 교환보다는 보편적 현상인 간접적 교환에 대한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이 둘을 통합하는 용어로서 분배공정성을 사용하게 되었다(석현호, 1997).

한편 조직심리학자들은 공정성 문제가 분배원칙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배분의 절차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많은 경우 분배의 차이가 분명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차이를 결정하는 개인들 간의 투입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분배공정성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이 얻은 결과의 공정한 분배보다 결과를 성취하는데 사용된 수단들이나 절차가 자신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통해 공정성을 평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공정성 연구가 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그 이후에는 후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석현호, 1997).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조직차원에서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 등에 관련된 공정성을 경험적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성 인식은 미시적 조직의 경제적 효율성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제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석현호, 199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거시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개인의 공정성 인식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려고 한다.

3. 사회단체 참여와 신뢰

사회단체 참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결사의 욕구’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사회성을 요구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결사체 참여 수준, 참여의 다양성, 결사체의 양식 등이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시민간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의 규범을 성장시키고, 조정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증가시키며(Putnam, 1993), 사회적 신뢰와 주민간의 연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Putnam, 1995) 등의 연구결과는 사회단체 생활이 신뢰 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단체참여는 정부 제도에 대한 공적신뢰의

향상을 이끌기도 하고,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하기 위한 추진제로서 사회적 신뢰를 이끌기도 한다.

사회단체 참여와 신뢰와의 관계에서 논의의 중심은 단체 참여가 공적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서구사회에 초점을 맞춘 발상이다. 베트남 등이 사회단체 활동이 많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하게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 것이다. 시민사회 발달을 거친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군대 조직이나 갱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체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체 참여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단체 참여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잉글하트(Inglehart, 1997)는 신뢰의 수준과 더불어 단체 역시 다양한 수준에 따라 신뢰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단체는 그 설립목적과 성격에 따라⁵⁾ 형성되는 신뢰의 유형과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설립목적이나 의사결정과정 등이 수직적인 공식집단에서는 공적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사적신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반대로 설립목적이나 의사결정과정이 수평적인 비공식 집단에 참여할수록 공적신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적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⁶⁾.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관계의 하나는 연줄이다. 연줄이란 한국인의 사회 심리학적 속성인 연고주의가 일상의 인간관계로 표면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연줄 하나 하나는 복합적으로 얽혀서 ‘연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정보, 돈, 권력 등 희소가치가 있는 사회적 자원을 교환한다. 많은 전통적 가치들이 외래가치들과 충돌하면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지만 연고주의만은 여전히 한국인의 가치세계,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특

5) 사회단체(결사체)는 여러 구성원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한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지,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인지, 집단이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지, 일차적 관계에 기초한 집단인지 등이 그것이다.

6) 실제로 잉글하트는 1999년에 43개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정도를 경험적으로 테스트하여 카톨릭교회가 개신교회보다 개인의 신뢰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서 이 관계를 설명하려 하였고, 박희봉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단체참여 유형과 신뢰수준의 이 같은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정한 내적 집단 내에 형성된 강한 신뢰와 이에 대한 의존 경향의 증대는 일 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역기능적일 수 있다. 특히 한 사회의 주요 제도와 경 쟁의 규범이 특정 내집단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한 사회의 공정성은 심각 하게 훼손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의 위축과 체제의 정당성 위기로 귀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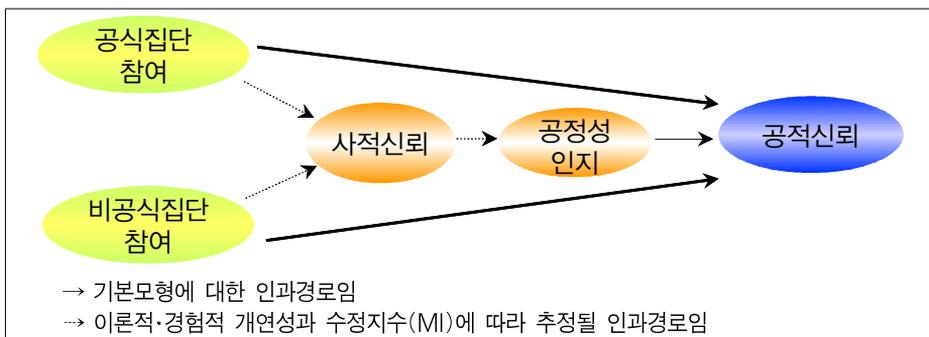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기본적인 분석틀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방향 적인 단체참여와 신뢰의 관계이지만, 단체참여와 신뢰를 둘러싼 다양한 논 의에 따라 변인들 간의 보다 정교한 관계를 검증하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들은 퍼트남이 주지한 신뢰의 조건으로서 단체참여를 단순한 직 접적 효과로 보고 그 관계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서구사회와 구조를 달리하 는 우리사회에서, 단체 참여의 유형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인지에 따라 사적 신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공정성 인식이란 매개변수를 통해 공적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그림 1>과 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연구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 모형을 통해 사회단체 참여유형과 사적신뢰, 개인의 공정성 인지 변인이 공적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적인 분석 과제가 도출된다. 연구모형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공식집단에 참여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연구가설 2〉 비공식집단에 참여하면 할수록 공적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연구가설 3〉 공식집단에 참여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적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연구가설 4〉 비공식집단에 참여하면 할수록 사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위의 4가지 가설은 퍼트남을 비롯한 서구 학자들에 의해 도출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연구가설 5,6,7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던 연구가설 1~4에 ‘공정성 인지’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는 이재혁(1998), 박찬웅(1999), 박병진(2004) 등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공적신뢰의 조건으로 공정성을 강조한다거나 한국사회의 특이성의 하나로 인식된 연줄망이 공정성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 〈연구가설 5〉 공식집단에 참여하면 할수록 개인의 사적신뢰는 낮아지고, 이는 개인의 제도에 대한 공정성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연구가설 6〉 비공식집단에 참여하면서 형성된 개인의 사적신뢰는 개인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연구가설 7〉 개인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지는 공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5,6,7을 부각시켜서 서구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단체참여와 신뢰와의 관계가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서울대학교 발전연구소’에 의해서 2003년에 수집되고 한국사회조사데이터아카이브가 제공한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하였으며 목표 사례 수는 1,500명 이었지

만 최종적으로 1,200사례가 조사되어 응답률은 80.0%였다. 이 조사는 (주)한국리서치의 액세스 패널(Access Panel)⁷⁾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50.3%, 여성은 49.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15.5%, 30대 26.1%, 40대 25.2%, 50대 18.9%, 60대 이상 14.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변수 구성

1) 신뢰 변인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인과 신뢰 대상 간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주관적 믿음이다. 신뢰란 시대적 상황과 지역의 문화, 개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서 나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지적 차원에서 이를 추정하고자 한다.⁸⁾

본 연구에서는 “귀하는 우리나라의 아래 기관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신뢰를 리커트(Likert) 5점 척도(①전혀 신뢰하지 않음 ②신뢰하지 않음 ③보통 ④신뢰하고 있음 ⑤매우 신뢰하고 있음)로 측정하였다. 질문 대상 기관이나 사람 중 공적신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부, 사법부, 언론, 대학이고, 사적신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친구 또는 학교동창, 고향사람, 가족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적신뢰는 최종 내생변인으로, 사적신뢰는 개인의 공정성 인지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매개변인으로써 사용하였다.

2) 공정성 인지 변인

공정성 인지에 관한 변수는 총 6개의 개별문항—1) 우리사회에서 원칙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 2) 노력만하면 누구나 한국사회에서 상류층이 될 수 있다 3) 우리사회에서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4) 우리사회에서 성공하려

7) 이 패널은 1999년부터 우편조사와 개별면접조사 등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며, 2002년 12월 말 현재 총 40,792명이다.

8) 신뢰의 측정은 연구자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통합하여 측정하기도 하고, 개별 대상에 대해 분리하여 측정하기도 한다(Inglehart, 1997).

면 연출이나 집안배경이 필수적이다 5) 우리사회는 1등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큰 사회이다 6) 우리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①매우 반대 ②다소반대 ③중간 ④다소찬성 ⑤매우 찬성)로 측정하였다.9)

이렇게 구성된 공정성 인지 변인은 공적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매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 사회단체 참여 변인

본 연구에서 사회단체 참여에 관한 변인은 외생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종친회·향우회, 동창회, 취미·문화 동호회, 계모임, 정치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7개 영역의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수준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참여수준은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회원에 가입만 되어 있다 ③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④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앞의 4개 단체는 비공식집단으로, 뒤의 3개 단체는 공식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요인: 통제 변수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신뢰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성장환경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적 이론전개라고 할 수 있다(Brehm and Rahn, 1997). 개인적 요소 즉 교육, 계급, 수입, 나이, 직업, 성, 종교 등이 자발적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신뢰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계층의식, 소득수준 등의 다섯 가지 변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변수와 기술통계치는 <부록 1>로 정리하였다.

9) 단 1), 3), 4), 5), 6)번 문항은 역 코딩(coding)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수치가 높을수록 개인의 긍정적인 공정성 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분석방법

이 연구는 사회단체참여, 공정성 인지, 신뢰수준 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FA), 확인적 요인분석(CFA), 공변량 구조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문항들이 단일차원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측정문항간의 내적 일치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모형을 추정하였다.

다음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2개 하위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모형 분석에서는 공적신뢰, 공정성 인지, 사적신뢰, 사회단체참여 등의 내·외생변수를 포함한 통제변수를 이론적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공적신뢰를 최종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공정성 인지와 사적 신뢰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예측변인들의 인과적 단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추정하였다. 이어서 각 결과변인을 설명하는 인과요인들의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시키는 경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 각 차원들을 결과변인으로 간주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을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각 요인에 대한 공변량 구조분석에는 AMOS 5.0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모형검증의 타당성 평가

최종내생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인 <표 1>을 살펴보면, KMO 값이 .637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증통계치의 유의수준은 자료의 상관이 1요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하 알파

(Cronbach' α) 계수도 .680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1〉 최종내생변인인 공적신뢰의 탐색적 요인분석

	성분
	1
행정부에 대한 신뢰	.7653
사법부에 대한 신뢰	.8054
언론에 대한 신뢰	.6790
대학에 대한 신뢰	.5994
신뢰도(Cronbach' α)	.680
고유치	2.055
설명변량	51.366
KMO 표본적합도 = .637	$p < .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외생 및 매개적 내생변인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인 <표 2>를 살펴보면, KMO값이 .723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통계치의 유의수준도 자료의 상관이 4요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로 평가한 결과는 .629, .688, .607, .582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표 2〉 외생 및 매개적 내생변인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성분			
	1	2	3	4
공정성1	.0160	-.2493	-.0546	-.0129
공정성2	.1546	-.2695	.0890	-.2556
공정성3	.1049	-.8147	-.0763	-.1344
공정성4	.1053	-.8671	-.0273	-.0744
공정성5	.1206	-.7009	-.0449	-.0398
공정성6	.1663	-.3774	-.1173	-.0342
종친회, 향우회	.2234	-.0709	.0733	-.6925
동창회	.2127	-.0941	.1663	-.7194
취미/문화 동호회	.1494	-.0477	.0469	-.6867
계모임	.2926	-.1759	.1415	-.5252
정치단체	.7769	-.0767	-.0238	-.1708
시민단체	.8174	-.1337	-.0572	-.2838
직능단체	.6620	-.1057	.0576	-.2391
친구, 동창에 대한 신뢰	-.0408	.1002	.8431	-.0958
고향사람에 대한 신뢰	.0583	.0710	.6400	-.2390

가족에 대한 신뢰	-.0171	-.0115	.7365	-.0339
신뢰도(Cronbach' α)	.629	.688	.607	.582
고유치	2.894	2.134	1.678	1.050
설명변량	18.087	13.340	10.490	6.563
KMO 표본적합도 = .723		p < = .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각 구성요소들의 요인부하 값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구성개념들을 설명하는 요인부하 값

측정 문항	요인부하값	t값
<u>공적 신뢰</u>		
1. 행정부	.722***	-
2. 사법부	.816***	15.690
3. 언론	.448***	12.867
4. 대학	.350***	10.228
<u>사적 신뢰</u>		
1. 친구, 동창 신뢰	.860***	-
2. 고향사람 신뢰	.471***	9.134
3. 가족 신뢰	.480***	9.177
<u>공정성 인지</u>		
1. 공정성1	.275***	-
2. 공정성2	.320***	6.630
3. 공정성3	.748***	8.350
4. 공정성4	.818***	8.375
5. 공정성5	.549***	7.941
6. 공정성6	.359***	6.969
<u>비공식집단 참여</u>		
1. 종친회	.640***	-
2. 동창회	.551***	12.127
3. 계모임	.445***	10.671
4. 동호회	.429***	10.397
<u>공식집단 참여</u>		
1. 정치단체	.611***	-
2. 시민단체	.774***	13.684
3. 직능단체	.467***	11.951

- 1) 요인부하 값은 Lambda(λ)로 표준화된 값임
- 2) 모든 요인부하 값이 p<.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 3) 제시된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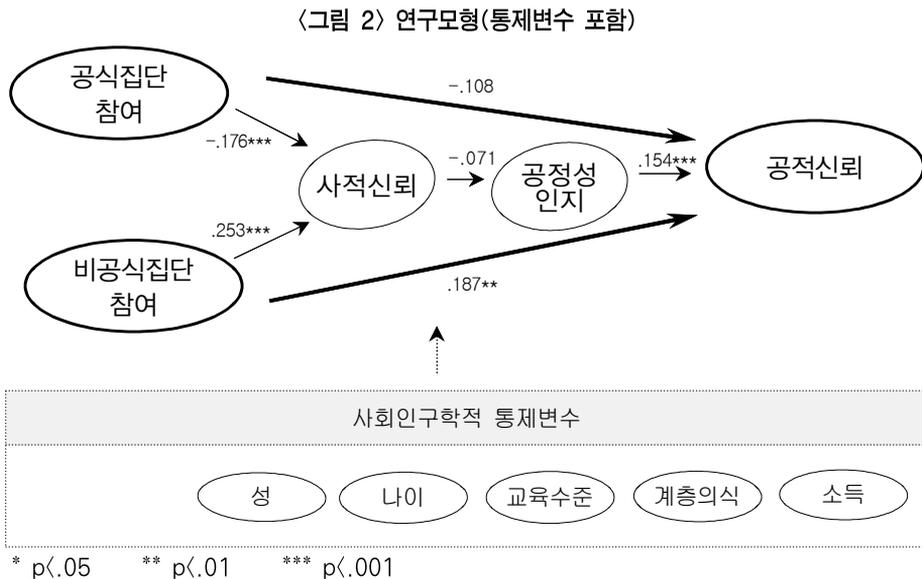
2. 구조모델의 검증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통제변수가 포함된 <그림 2>로 나타나며, 인과적 단위 영향을 보여주는 구조모형은 <표 4>와 같다.

각 내생변인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신뢰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공식집단 참여(B=-.176), 비공식집단참여(B=.253), 연령(B=-.202) 등 세 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집단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수록, 비공식집단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사적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정성 인지에 대한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사적신뢰(B=-.071)와 연령(B=.209) 두 가지 변인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신뢰가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GFI	AGFI	NFI	CFI	IFI	RMSEA	
적합도 (최적모형)	1144.440 df=238	.927(1.0)	.907(1.0)	.794(1.0)	.826(1.0)	.827(1.0)	.057

<표 4> 공적신뢰의 인과요인들에 추정결과

변인	최종내생변인: 공적신뢰		
	사적신뢰	공정성 인지	공적신뢰
매개변인			
사적신뢰	-	-.071*	-
공정성 인지	-	-	.154***
외생변인			
공식집단 참여	-.176***	-	-.108
비공식집단참여	.253***	-	.187**
통제변인			
남성더미	.048	.032	-.060
연령	-.202***	.209***	-.062
교육수준	.043	-.019	-.053
계층의식	.011	.041	.094*
소득수준	.006	.002	-.113**
R^2		.064	
χ^2	1,144.440(df=238) (p < .001)		
모형부합치	GFI=.927, AGFI=.907, NFI=.794, CFI=.826, IFI=.827, RMSEA=.057		

* p < .05, ** p < .01, *** p < .001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임.

셋째, 공적신뢰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공정성 인지(B=.154), 비공식집단 참여(B=.187), 계층의식(B=.094), 소득수준(B=-.113) 등 네 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정성 인지가 높을수록, 비공식집단에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적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개별적 단위 영향들만을 분석한 것일 뿐, 최종적 내생변인들 각각에 대한 인과요인들의 간접영향 및 전체영향까지도 분석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영향이 규명되어야만 각 인과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평가될 수 있다(김상욱, 2001) 이를 위해서는 최종내생변인인 공적신뢰와 매개적 내생변인인 공정성 인지에 대한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시킨 경로분석이 요구되는데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공적신뢰와 공정성인지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직접·간접·전체 영향을 분리한 추정결과

변인	공정성 인지			공적신뢰		
	직접영향	간접영향	전체영향3)	직접영향	간접영향	전체영향3)
매개변인						
사적신뢰	-.071*	-	-.071*	-	-.011	-.011
공정성 인지	-	-	-	.154***	-	.154***
외생변인						
공식집단 참여	-	.012	.012	-.108	.002	-.106
비공식집단참여	-	-.018	-.018	.187**	-.003	.184**
통제변인						
남성더미	.032	-.003	.028	-.060	.004	-.056
연령	.209***	.014	.223***	-.062	.034	-.028
교육수준	-.019	-.003	-.022	-.053	-.003	-.057
계층의식	.041	-.001	.040	.094*	.006	.101*
소득수준	.002	.000	.002	-.113**	.000	-.113**

*p < .05, **p < .01, ***p < .001

주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임.

주2: 전체영향 = 직접영향 + 간접영향

우선 공적신뢰의 경로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그 영향의 절대적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비공식집단 참여(B=.184), 공정성 인지(B=.154), 소득수준(B=-.113), 계층의식(B=.101)의 순서이다. 결과를 각 변인 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사적신뢰 변인은 전체영향이 공정성인지에 의해 전적으로 매개된 간접영향(B=-.011)으로만 구성되며, 인과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공정성 인지와 공적신뢰를 연결하는 제3의 변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인지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B=.154)으로만 구성되며, 그 인과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사회단체참여는 공적신뢰의 변인과 직접적인 영향(공식집단 참여 B=-.108, 비공식집단 참여 B=.187)이외에 사적신뢰와 공정성 인지라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영향(공식집단 참여 B=.002, 비공식집단 참여 B=-.003)과 결합한 전체영향(공식집단 참여 B=-.106, 비공식집단 참여 B=.184)으로 구성되며, 비공식집단 참여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제변인의 경우 계층의식(직접영향 B=.094, 간접영향 B=.006, 전체영향 B=.101)과 소득수준(직접영향 B=-.113, 간접영향 B=.000, 전체영향 B=-.113)의 변인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 성, 연령, 교육수준의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공정성인지의 경로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그

영향의 절대적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연령($B=.223$)과 사적신뢰($B=-.071$)이다. 결과를 각 변인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공정성 인지와 사적신뢰를 연결하는 제3의 변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신뢰의 전체영향은 직접 영향($B=-.071$)으로만 구성되며, 그 인과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사회단체참여 변인은 전체영향이 사적신뢰에 의해 전적으로 매개된 간접영향(공식집단 참여 $B=.012$, 비공식집단 참여 $B=-.018$)으로만 구성되지만, 인과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통제변인의 경우 연령(직접영향 $B=.209$, 간접영향 $B=.014$, 전체영향 $B=.223$) 변인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 성, 교육수준, 계층의식, 소득수준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적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요인에 있어서 비공식집단 참여 변인과 공정성 인지 변인 모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비공식집단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제도에 대해 공정하게 느낄수록, 계층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적신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정성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요인에 있어서 사적신뢰 변인은 역(逆)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사적신뢰가 낮을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제도에 대해 공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공적신뢰와 공정성인지, 사적신뢰, 사회단체참여수준 사이의 단위영향 및 매개효과를 연구가설 순으로 검증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은 공식집단 참여가 공적신뢰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관한 것인데 공식집단 참여수준과 공적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2>는 비공식집단 참여가 공적신뢰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관한 것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B=.187$ $p<.05$)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가설에 제시한 바와 달리, 오히려 역(逆)의 관계 즉 비공식집단에 참여할수록 공적신뢰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가설 역시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3>은 공식집단 참여가 사적신뢰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B=-.176$ $p<.001$)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연구가설 4>는 비공식집단 참여가 사적신뢰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B=.253$ $p<.001$)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연구가설 5>는 공식집단참여가 사적신뢰를 거쳐서 공정성인지에 미치는 복합적인 인과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단위영향에 대한 ML 추정결과에서 나타난 공식집단참여수준과 사적신뢰 간 간접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B=.012$)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수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식집단 참여와 사적신뢰($B=-.176$ $p<.001$), 사적신뢰와 공정성인지($B=-.071$ $p<.05$) 각각의 직접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가설은 완전히 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수준에서는 수용된다.

<연구가설 6>은 비공식집단 참여가 사적신뢰를 거쳐서 공정성인지에 미치는 복합적인 인과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단위영향에 대한 ML 추정결과에서 나타난 비공식집단 참여수준과 사적신뢰 간 간접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B=-.018$)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가설은 수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공식집단 참여와 사적신뢰($B=.253$ $p<.001$), 사적신뢰와 공정성인지($B=-.071$ $p<.05$) 각각의 직접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가설은 완전히 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수준에서는 수용된다.

<연구가설 7>은 공정성 인지가 공적신뢰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관한 것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B=.154$ $p<.001$)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V. 논의 및 결론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신뢰가 부족하면 각종 활동이 비효율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서 본 연구는 집단활동에의 참여 유형과 신뢰의 유형 및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각종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매개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려고 했던 점은 우리사회의 구조가 서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연출·연고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의 구체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각각의 고유변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회단체참여(공식집단 참여, 비공식집단 참여), 공정성 인지, 사회적 신뢰(공적신뢰, 사적신뢰) 변인 사이에는 판별·집합타당도가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제각기 해당차원의 개념들만을 측정할 뿐 아니라 이들 차원들이 각기 별도의 개념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된 5-요인모형이 최적모형으로 판명됨으로써 5-요인모형에 잠재된 각 구성개념들의 판별·수렴타당도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각 구성개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중공선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신뢰(공적신뢰, 사적신뢰)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가운데 사회단체참여(공식집단 참여, 비공식집단 참여)변인과 관련한 <연구가설 1,2,3,4>를 살펴보면 <연구가설 1,2>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구가설 3,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수용되었다. 사회적 신뢰의 요건 중에 하나로 퍼트남과 토크빌을 포함한 서구의 학자들은 의사결정과정이나 참여방식이 수직적인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본 연구에는 공식집단에의 참여)가 공적신뢰를 높인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연구가설 1>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설명은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가설 2>의 검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설명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연구가설 3>은 수용되었는데, 공식집단에 참여할수록 개인의 사적신뢰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가설 4>의 수용은 우리 사회에서 연고집단을 포함한 비공식집단에 참여할수록 개인의 사적신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정성 인지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가운데 사적신뢰와 사회단체참여(공식집단 참여, 비공식집단 참여)변인과 관련된 <연구가설 5, 6>은 부분적으로 수용된다. 즉 공식집단에의 참여는 개인의 사적신뢰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부의 효과를 낳는다. 또한 연고집단을 포함한 비공식집단에의 참여는 개인의 사적신뢰를 증가시키고, 제

도에 대한 공정한 인식을 방해한다. 이는 이재혁(1999)과 박병진(2004)이 연구한 것처럼, 배타적 연결망의 형성과 그 심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전체의 합리성과 효율성저하 즉 공정성의 침해라는 논의를 다시 부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넷째, 공적신뢰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가운데 공정성 인지변인과 관련된 <연구가설 7>은 수용되었다. 이는 콜만(1988)과 박찬웅(1999) 등이 지적한 것처럼, 신뢰는 정보의 배분과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관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고,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게임의 실행이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한다면 공적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는 논의를 입증시켜주는 결과이다.

종합해 보면, 우리사회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공식집단への 참여가 사회에서 공적신뢰를 높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적신뢰를 매개로 하여 공정성인지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공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집단에 참여할수록 사회에서 공적신뢰가 떨어진다는 가설 역시, 이러한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된 사적신뢰로 인해 공정성인지 수준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공적신뢰 수준을 낮춘다는 인과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공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은 단체참여로 인한 사적신뢰의 증감과 개인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와 연관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공적신뢰와 사적신뢰는 긴밀한 역동적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신뢰는 공적신뢰의 필요조건이며, 사회내의 공적신뢰의 정도는 사적신뢰의 축적의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간의 사적신뢰, 특히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간에 형성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신뢰의 형성이 공중과 제도, 국가 등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 즉 공적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서로 이어지지 못하고, 신뢰의 격차를 낳거나(이준웅 외, 2005), 사적인 신뢰의 축적이 배타적이고 파당적인 연결망의 구성으로 연결되어 연고주의(이재혁, 1999)를 낳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서구사회의 이론들을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거시적 연구들이 사회단체참여와 신뢰라는 큰 틀에서 단순한 도식을 통해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인과관계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동어반복 등의 문제점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여러 인과변인들의 단위영향과 매개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용학·손재석. (1998). 미시적 신뢰와 거시적 위험. 「계간사상」, 가을호: 115-132.
- 박병진. (2004). 공적 신뢰의 조건. 「신뢰연구」, 14: 37-48.
- 박찬웅.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21-70.
- 원숙연. (2001). 신뢰의 개념적, 경험적 다차원성. 「한국정책학회보」, 10(3): 63-70.
- 유석춘. (2000).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아시아문화」, 제15호.
- 이준웅 외.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한국언론학보」, 49(3): 234-247.
- 이재혁. (1999).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2): 311-333.
- 이종범. (1988). 「국민과 정부관료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Adams, J. Stacy.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 Brehm, John &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 1023.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Clark, M. and Payne R. (1997). The Nature and Structure of Workers' Trust in Management. *Journal of Organization Behavior*, 18: 205-224.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구승희 (역).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 신문사, 1996.
- Golemibiewski, R. and McConkie, (1975). "The Centrality of interpersonal trust in Group Processes." Cooper, C. L. ed., *Theories of Group Processes*. New York: John Wiley.
- Hardin, R. (1998). Trust in Government. Braithwaite. In V. and Levi, M. (ed.), *Trust and*

- Governance*. Russell Sage.
- Homans, George C. (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Hosmer, L. T. (1995). Trust: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Moral Philosophy. *AMR*, 20(2): 379-390.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hnson-George, C. and W. C. (1982). Measurement of Specific Interpersonal Trus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Scale to Assess Trust in a Specific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306-1317.
- Lewis, J. D. & B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 967-985.
- Luhmann, N. (1979). *Trust and Power*. Chester: Wiley.
- Rotter, J. B. (1967). A New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35: 615-665.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안청시 외(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전영사, 2000.
- _____.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 664-683.
- Shapiro, S. P. (1987). The social control of impersonal trus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623-658.
- Toqueville, Alexis de, <1835, 1840> (1990). *Democracy in America*. Reprint. New York: Vintage.
- Zand, D. (1972). Trust and Managerial Problem Solv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117-123.

유홍준(劉泓竣):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1988)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 이사, 한국정보사회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역서와 논문으로는 「직업사회학」(2000), 「조직사회학」(1993), 「사회조사방법론」(공역, 2007), 「현대사회학」(공역, 2009), “한국의 직업지위”(2007) 등이 있다(yhjcti@hanmail.net).

홍훈식(洪勳植):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2007)를 취득했으며, 조사연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의 연구원을 거쳐 현재 통계청 통계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통계청의 적정 조사인력 산출 연구”(2009) 등을 발표했다(hshong2@korea.kr).

부 록 1.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

	범위	평균(N)	표준 편차	신뢰도
〈신뢰 변인〉				
공적신뢰				
1) 행정부	1-5	2.467(1,170)	0.814	0.680
2) 사법부	1-5	2.439(1,170)	0.918	
3) 언론	1-5	2.742(1,170)	0.921	
4) 대학	1-5	3.066(1,170)	0.804	
사적신뢰				
5) 친구 또는 학교동창	1-5	3.833(1,170)	0.781	0.607
6) 고향사람	1-5	3.380(1,170)	0.778	
7) 가족	1-5	4.578(1,170)	0.690	
〈공정성 변인〉				
1) 우리사회에서 원칙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	1-5	2.584(1,170)	0.904	0.688
2) 노력만하면 누구나 한국사회에서 상류층이 될 수 있다.	1-5	2.804(1,170)	1.203	
3) 우리 사회에서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	1-5	2.493(1,170)	1.206	
4) 우리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배경이 필수적이다.	1-5	2.458(1,170)	1.091	
5) 우리사회는 1등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큰 사회이다.	1-5	2.270(1,170)	1.084	
6) 우리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1-5	1.970(1,170)	0.982	
〈사회단체참여 변인〉				
비공식집단				
1) 종친회, 향우회	1-5	1.896(1,170)	1.248	0.582
2) 동창회	1-5	2.715(1,170)	1.412	
3) 취미/문화 동호회	1-5	2.810(1,170)	1.406	
4) 계모임	1-5	2.802(1,170)	1.575	
공식집단				
5) 정치단체	1-5	1.430(1,170)	0.890	0.629
6) 시민단체	1-5	1.432(1,170)	0.917	
7) 직능단체	1-5	1.433(1,170)	0.928	
〈사회인구학적(통제) 변인〉				
1) 성별(dummy 남성=1)	0-1	0.504(1,170)	0.500	-
2) 나이	20-73	40.501(1,170)	13.273	-
2) 소득수준(LN)	0-6.91	5.478(1,170)	0.802	-
3) 계층의식	1-10	4.960(1,170)	1.479	-
4) 교육수준	1-7	4.786(1,170)	1.284	-